

보도시점 2024. 10. 18.(금) 10:00 / 배포 2024. 10. 18.(금) 08:30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일반지주회사 CVC’)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 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4.8.28)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아울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바,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우: 30108)

\* 팩스: 044-200-4976 \* 전자우편: typejoo@korea.kr

####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건 (044-200-4932)
		담당자	사무관	유형주 (044-200-4936)

## 1.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 제외

-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20③5.라.)
  - 그런데 현행 해석지침은 '해외기업'을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국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기업에 포함된다.
- 개정안은 지주회사 해석지침상 '해외기업'의 기준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였다.

####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

- ◇ (국외 창업)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 포함)이 실질적 지배력(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행위 (법 제2조 제2호의2)
- ◇ (국외 창업기업)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은 창업기업에 한정)이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법 제2조 제3호의2)
  1.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2.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 ▲국외창업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3.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기업을 설립한 후 국내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20①)
  -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바,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가. '해외기업'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 지주회사 해석지침 상 '해외기업'의 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내역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다.

\* [별지13]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일반지주회사 CVC 피투자기업의 해외기업 해당 여부 작성 시 변경된 해외기업 정의를 반영하여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 한편, 국외 창업기업 해당 여부도 작성하도록 하여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바,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별첨 1]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전문

[별첨 2]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전문

[별첨 4]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